

| Bi-Weekly |

# 신영 ESG

“ 더욱 강력해진 EU CBAM... 이에 맞춰 대응을 강화해야 ”

Content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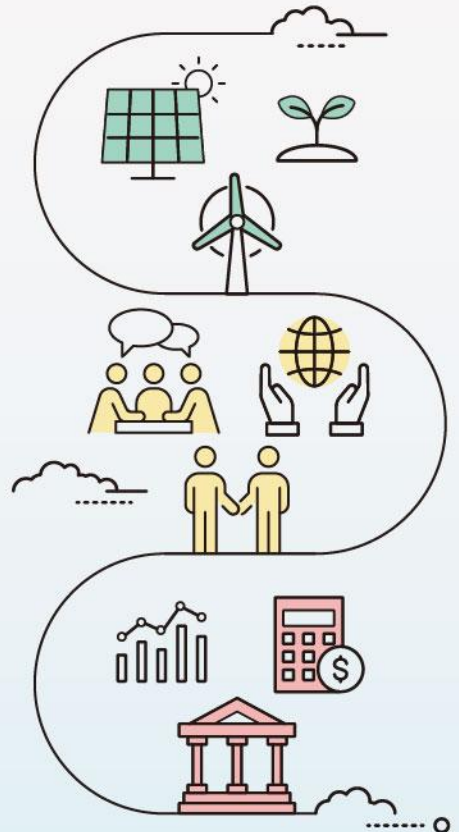
ESG essay

신영's View

ESG 탐방 노트  
기아

ESG ETF 따라잡기  
Horizon Kinetics Energy Remediation ETF  
(NVIR)

ESG News Clipping



# 더욱 강력해진 EU CBAM... 이에 맞춰 대응을 강화해야

## EU 이사회, EU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강화 방안 추진

EU 이사회는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한 CBAM 강화안을 발표함

유럽연합(EU) 이사회는 6월 12일 유럽연합 의회와의 협상에 앞서 탄소 누출 방지 및 전 세계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EU의 도구인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강화안에 합의함.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CBAM의 적용 범위를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임. 핵심은 ① 적용품목 확대(Downstream Products), ② 우회수입 차단(Anti-circumvention), ③ 시장충격 발생 시 예외조항 신설(Emergency Exemption) 등임. 해당 개정안은 유럽연합 의회와의 조율을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합의될 예정이며 만약 연내 타결이 이뤄지면 오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도표 1. 강화된 CBAM을 발표한 EU 의회



자료: EU의회 홈페이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유량이 높은 약 400개 하위 제품이 CBAM 적용 대상으로 추가됨

현행 CBAM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주로 기초 원재료 중심이었음. 이로 인해 제조과정에서 CBAM 대상 원자재, 특히 철강, 알루미늄을 상당 부분 사용하는 비EU 제품이 EU 역외에서 배출량 증가를 초래하고, 배출권 거래제 대상인 유사한 EU 제품을 대체할 위험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존재했음. 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CBAM의 적용 범위를 기초 원재료뿐 아니라 철강과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는 일부 Downstream 제품까지 확대하게 됨.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해 지게차, 세탁기, 정원용 장비 등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유량이 높은 180개 하위 제품을 CBAM 대상에 추가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음. EU 이사회는 여기에 기계류,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금속가공품, 산업설비 등 약 200개 품목을 더해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임. 향후 EU 집행위원회는 매년 추가 품목을 검토하게 될 예정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상 품목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기업들의 허위 신고나 우회 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 →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통상 규제 수준으로 강화됨을 의미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우회수입 차단임. EU는 ① HS Code 변경, ② 중간국 경유, ③ Scrap 이용 회피, ④ 배출량 허위보고 등의 사례들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해 ▲Pre-consumer Metal Scrap 포함, ▲고위험 기업 조사권 강화, ▲집행위의 즉각 대응 권한 확대 등이 도입됨. 이처럼 개정안에는 금속 스크랩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해 일부 언론 등은 철강·알루미늄 생산 과정에서 나온 스크랩을 활용해 탄소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우회 경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함. 또한 EU 집행위원회의 조사·조치 권한도 강화될 예정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고위험 기업의 보고 과정에서 기만적 행위나 허위 신고가 확인될 경우 직접 조치할 수 있게 됨. 대상 품목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기업들의 허위 신고나 우회 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이는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통상 규제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임.

시장 충격 발생시 CBAM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장치가 도입됨. 다만 예외 적용 기준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조건'으로 한정함

또한 흥미로운 변화는 시장 충격 발생시 CBAM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장치가 도입되었다는 점임. 예를 들어 에너지 위기, 공급망 붕괴, 원자재 급등 등이 발생하면 EU 집행위원회는 일정 기간 CBAM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번 EU의회(EC) 안에서는 예외 적용 기준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조건'으로 한정해 기존 집행위원회의 제안보다 중단 요건을 강화함. 기존 집행위원회의 안은 '심각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격이 높아질 경우' 일부 상품을 CBAM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안했는데 이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임.

2026년 2분기 CBAM 인증서 가격은 1분기에 이어 75유로 수준으로 전망됨 → EUA 가격은 상반기 동안 큰 등락을 보였지만 인증서 가격은 분기별 평균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

한편 독일 탄소시장 분석업체 CO<sub>2</sub> IQ는 지난 6월 24일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6일 발표할 2분기 CBAM 인증서 가격을 약 75유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함. 만약 이렇게 정해진다면 1분기 75.36유로(€ 75.36/tCO<sub>2e</sub>)에 이어 2분기에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임. 유럽 탄소배출권(EUA) 시장에서 현물가격은 올해 1분기에는 톤당 90유로대에서 60유로 초반까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음. 2분기 들어서는 경매가격이 톤당 70유로~80유로 범위에서 움직였고, 4월 이후 평균은 74.62유로를 보이고 있음. 이처럼 유럽 탄소배출권(EUA) 가격은 상반기 동안 큰 등락을 보였지만 인증서 가격은 분기별 평균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분기마다 한 차례 공표하기 때문에 톤당 75유로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임.

이 같은 방식은 EU 집행위원회 이행규정(IR 2025/2548)에 따른 것으로 탄소시장이 단기적으로 출렁여도 CBAM 비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유임. 이에 따라 기업들이 수출 원가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됨. 이는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과거 탄소가격 변동성이 기업 실적 추정의 큰 변수였으나 이처럼 분기 평균가격의 적용됨에 따라 기업은 수출단가, 원가, CBAM 비용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음.

2027년 수출분부터 적용되는 CBAM 인증서 가격 산정 방식이 분기 평균에서 주간 평균으로 변경됨. 적용 대상도 무상 할당 폐지 일정에 따라 203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

그러나 2027년부터는 다시 달라짐. 현재 2026년 수출분의 경우 분기 평균가격 적용되었으나 2027년부터는 직전주 경매가격의 주간 평균으로 변경될 예정임. 즉 매주 인증서 가격이 새롭게 산정되게 되는 것으로 탄소시장 변동성이 기업 원가에 훨씬 빠르게 반영되게 됨. 게다가 비용부담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임. 현재는 EU ETS 무상할당이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내재배출량의 2.5%만이 인증서 제출 대상임. 하지만 무상할당 폐지 일정에 따라 2034년에는 결국 100%까지 확대되게 됨. 즉, CBAM에 따른 비용 부담이 향후 8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돼 기업 경영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도표 2. 2분기 CBAM 가격 전망과 2027년 가격 산정 방식 변화에 따른 전후 비교



자료: CO2 IQ, Impact-on,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번 개정안으로 CBAM은 원재료 규제에서 공급망 전체 규제로 진화하게 됨 → 탄소 가격에 이어 적용 품목 확대, 공급망 추적 강화, 내재배출량 데이터의 신뢰성, 제품별 탄소집약도 등의 이슈로 확대될 것 → 이에 저탄소 생산 경쟁력이 핵심 차별화 요소로 더욱 부각될 것

한국의 EU CBAM 대상 수출은 약 51억 달러 규모이며, 그 중 철강이 약 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현재까지 CBAM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철강업종이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대상이 확대되면서 향후에는 자동차부품, 산업기계, 금속가공, 가전까지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CBAM은 이제 단순한 탄소세가 아님.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CBAM은 원재료 규제에서 공급망 전체 규제로 진화하게 됨. 시장에서는 CBAM을 탄소가격 수준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향후 실제로 기업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적용 품목 확대, 공급망 추적 강화, 내재배출량 데이터의 신뢰성, 제품별 탄소집약도 등이 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저탄소 생산 경쟁력이 핵심 차별화 요소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관련 공급망 내 기업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임.

## ESG 이벤트 & 신영's View

### K-스틸법으로 철강 탈탄소 전환 시동...저탄소 공정 지원 시급

- 'K-스틸법' 본격 시행으로 국내 철강 탈탄소 전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글로벌 탄소 장벽(EU CBAM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세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막대한 탄소중립 투자 비용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저탄소 철강 인증제 도입 및 공공조달 우대 등 실효성 있는 수요 기반 조성이 필수적임

### Comments

- 글로벌 철강재 공급 과잉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의 무역장벽과 탄소 비용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음
- EU CBAM을 비롯해서 수입 제품 탄소 규제 시행이 본격화되며 저탄소 공정 전환 압박이 커지는 중
- 장기적으로 전기로,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원료 확보, 고부가 제품 제품 믹스를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이 부각될 전망

- Analyst 박진수

### 화장품업계 ESG 확산... 치유·자립·환경까지 사회적 가치 확대

- 화장품 기업들이 단순 기부를 넘어 화상 환자 치료, 자립준비청년 및 다문화 아동 지원, 농촌 일손 돕기 등 브랜드 고유 가치와 연계한 실질적 사회공헌활동을 다각화하며 진정성을 강화
- ESG 경영이 화장품 업계의 필수 경쟁력으로 안착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브랜드 가치를 결합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주류로 자리잡음

### Comments

- 로레알,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화장품 업체들은 매년 친환경 부문에 투자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 소비자들은 비저너리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친환경 화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가 마케팅 요소로도 활용되고 있음
- 다만, 마케팅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기업 성장에 집중해야 하는 인디 브랜드들에게는 ESG 활동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음

- Analyst 이교석

### Pimco "보험 안 되는 건물은 안 산다"...기후 위험이 바꾼 부동산 투자 기준

- 알리안츠 그룹 산하 펴임 프라이미 리얼 에스테이트(Pimco Prime Real Estate) "보험 못 구하면 건물도 안 산다"...기후위험이 투자 기준 됐다
- 노후건물은 위기 아닌 기회...'브라운 투 그린'(Brown-to-Green)투자 확산 → 보험과 규제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노후 건물은 매입한 뒤, 개보수를 통해 자산 가치를 높이는 방식도 병행
- 런던 오피스 78% 기준 미달...강화되는 건물 규제 ← 2030년대 초 시행 예정인 최소에너지효율기준(MEES) 규제

### Comments

- 자연재해 고위험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저위험 지역보다 16.9%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비선호 지역: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상당 지역, 아시아 일부 지역 → 기후 위험에 따른 보험시장 위축으로 투자 매력력이 낮음
- 선호 지역: 파리·뮌헨·시드니·뉴욕 → 선제적으로 기후 대응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도시로 평가
- 블랙스톤, 브룩필드, 헨더슨 파크 캐피탈 등도 '브라운 투 그린' 투자에 관심 → 투자자들은 상업용 부동산의 탈탄소화와 기후 회복력 강화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 있음

- Analyst 오광영

# 기아(000270.KS)

매수(TP 185,000원)

## 친환경, 공급망, 주주가치의 통합

현재주가(6/25) 139,500원

<p><b>ESG 등급 현황</b></p> <table border="1"> <tr> <td>(평가기관)</td> <td>ESG</td> <td>E</td> <td>S</td> <td>G</td> </tr> <tr> <td>KCGS</td> <td>B+</td> <td>A+</td> <td>A</td> <td>B</td> </tr> <tr> <td>Bloomberg</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Sustainalytics</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p>주: KCGS : S~D 7등급 Bloomberg: 100 만점 기준 Sustainalytics 100~0 높을수록 상위권</p>	(평가기관)	ESG	E	S	G	KCGS	B+	A+	A	B	Bloomberg	-	-	-	-	Sustainalytics	-	-	-	-	<p><b>ESG 등급 변화</b> (KCGS)</p> <table border="1"> <tr> <th>연도</th> <th>ESG 등급</th> </tr> <tr> <td>2022년</td> <td>B+</td> </tr> <tr> <td>2023년</td> <td>B</td> </tr> <tr> <td>2024년</td> <td>A</td> </tr> <tr> <td>2025년</td> <td>B+</td> </tr> </table>	연도	ESG 등급	2022년	B+	2023년	B	2024년	A	2025년	B+	<p><b>Key Data</b> (기준일: 2026. 06. 25)</p> <table border="1"> <tr> <td>시가총액(억원)</td> <td>544,626</td> </tr> <tr> <td>배당수익률(26F.%)</td> <td>4.2</td> </tr> <tr> <td>외국인지분율(%)</td> <td>38.7</td> </tr> <tr> <td>주요주주 지분율(%)</td> <td></td> </tr> <tr> <td>현대자동차 외 4인</td> <td>37.0%</td> </tr> <tr> <td>국민연금공단</td> <td>6.8%</td> </tr> </table> <p><b>Company Performance</b></p> <table border="1"> <tr> <td>주가수익률(%)</td> <td>1M</td> <td>3M</td> <td>6M</td> <td>12M</td> </tr> <tr> <td>절대수익률</td> <td>-15.4</td> <td>-11.7</td> <td>15.3</td> <td>38.0</td> </tr> <tr> <td>KOSPI대비 상대수익률</td> <td>-25.6</td> <td>-44.2</td> <td>-47.0</td> <td>-52.0</td> </tr> </table>	시가총액(억원)	544,626	배당수익률(26F.%)	4.2	외국인지분율(%)	38.7	주요주주 지분율(%)		현대자동차 외 4인	37.0%	국민연금공단	6.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5.4	-11.7	15.3	38.0	KOSPI대비 상대수익률	-25.6	-44.2	-47.0	-52.0
(평가기관)	ESG	E	S	G																																																							
KCGS	B+	A+	A	B																																																							
Bloomberg	-	-	-	-																																																							
Sustainalytics	-	-	-	-																																																							
연도	ESG 등급																																																										
2022년	B+																																																										
2023년	B																																																										
2024년	A																																																										
2025년	B+																																																										
시가총액(억원)	544,626																																																										
배당수익률(26F.%)	4.2																																																										
외국인지분율(%)	38.7																																																										
주요주주 지분율(%)																																																											
현대자동차 외 4인	37.0%																																																										
국민연금공단	6.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5.4	-11.7	15.3	38.0																																																							
KOSPI대비 상대수익률	-25.6	-44.2	-47.0	-52.0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구분	단위	2023	2024	구분	단위	2023	2024	구분	내용
온실가스 배출량	천tCO2eq	1,130.9	1,178.5	산업 재해율	%	0.77	0.89	주주총회	4 주전 소집공고 실시
폐기물 발생량	천 톤	231.9	208.4	비정규직 비율	%	5.9	7.1	전자투표제	실시
환경관련 투자비	억원	137.8	219.2	여성 근로자 비율	%	4.7	5.0	집중투표제	미배제
환경경영 인증	ISO 14001 인증			사회공헌 지출액	백만원	95,407	81,755	배당실시	25년 주당 배당금 6,800 원
환경경영 조직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협력사 안전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이사회 운영 실적	6 회 실시 사외이사 참석률 100%

### ESG 관련 최신 활동

<p><b>기아, 친환경 모빌리티로 자동차 부문 ESG 대상 수상</b> (한스경제, 26.06.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아는 '2026 ESG Korea Forum &amp; Awards'에서 시가총액 상위 250대 기업 중 자동차 부문 ESG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함</li> <li>EV 중심 친환경 전략, 글로벌 사업장 RE100 조기 달성 추진, 차량 제조 과정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 등이 환경 부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li> <li>교통약자·장애인 이동권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과 투자자 대상 투명한 거버넌스 소통 역량도 주요 성과로 인정받음</li> </ul>	<p><b>현대차·기아, '2025 CDP 코리아 어워드' 석권... 글로벌 ESG 리더십 입증</b> (데일리비즈온, 26.03.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차·기아는 세계적인 권위의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CDP가 주관하는 평가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수자원 관리 부문 최고 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하며 친환경 경영 성과를 인정받음</li> <li>기아는 선택소비재 산업 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며 환경경영 부문의 정량적인 성과를 국제적으로 증명함</li> <li>수질오염물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 등 효율적이고 고도화된 수자원 리스크 관리 체계를 인정받음</li> </ul>	<p><b>기아 오토랜드 화성, '폐기물 매립 제로' 골드 획득</b> (핸드메이커, 26.01.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아의 오토랜드 화성은 글로벌 안전 과학 전문기업 UL솔루션즈가 부여하는 폐기물 매립 제로 (ZWTL) 인증에서 골드 등급을 획득함</li> <li>ZWTL인증은 기업의 자원 순환 및 폐기물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으로, 골드 등급은 95~99.5%의 재활용 비율에 해당함</li> <li>오토랜드 광주가 2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오토랜드 화성까지 처음으로 골드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를 재활용과 자원 효율 제고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임</li> </ul>
--	---	---

## ESG history

연혁	내용
2020년	[G] 전자투표제 도입
2021년	[ESG] 2045년 탄소중립 선언 및 첫 TCFD 공시
2022년	[ESG] RE100 아니셔티브 가입, 2040년 RE100 목표 수립 [ESG] 탄소중립 전담부서 신설 및 추진체계 구축
2023년	[E] 현대건설과 국내 219MW 규모 PPA 공급협약 체결
2024년	[G] AutoLand 광주 폐기물 매립 제로(ZWTL) 플래티넘 등급 획득 [ESG] DJSI World 지수 3년 연속 편입 [S] 동반성장지수 평가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E] CDP 섹터 아너스 수상(5년 연속) 및 수자원 부문 우수상 수상
2025년	[G]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및 여성 사외이사 비율 60% 운영 [E] 국내 사업장 50MW PPA 도입. 전 오토랜드 자체발전 운영 [E] SBTi 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승인(2035년까지 Scope 1+2+3 모두 2024년 대비 63% 감축)
2026년	[ESG] ESG Korea Forum&Awards 자동차 부문 대상 수상

## ESG 전략 - 기아의 기업전략인 Plan S와 연계하여 ESG 요소를 경영 전반에 내재화

ESG를 별도의 기업 활동으로 보지 않고, 탄소중립(E), 지속 가능한 공급망(S), ESG 연계 경영활동과 주주 환원(G)을 기업 경영 전략과 묶어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아 ESG의 목표임.

### ESG Keyword - 영감을 주는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움직임

**Cleaner & Circular(환경 영역):** 2022년 탄소중립 전담 부서를 신설한 기아는 2040년 RE100 달성하고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자동차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공급망-사용-물류-폐기 단계까지를 포함한 전 주기에 걸쳐 탄소 감축과 자원 선순환을 추진 중.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기아는 화성 Autoland(9.8MW), 광주(1.1MW), 인도 공장(3.7MW)에 태양광 자체 발전을 가동했으며, 지속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 주요 임원에 대해 탄소중립 실적과 연계된 KPI를 도입함.

**Safe & Satisfying(사회 영역):** 단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고객 안전, 임직원 보호,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지역사회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 협력 업체들의 ESG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기아의 ESG 관리 범위를 확장하고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했으며, 장애인 이동권 지원(초록여행), 개발도상국 자립 지원(그린라이트 프로젝트)을 통해 '모빌리티 기업' 정체성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전개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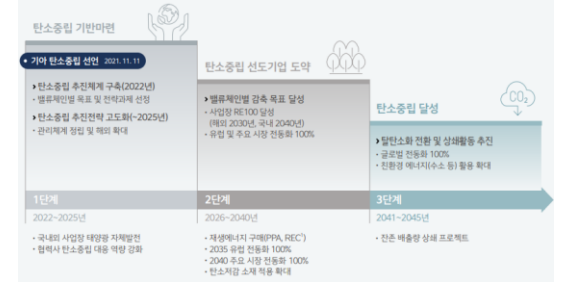
**Transparent & Trustworthy(거버넌스):** ESG를 경영 책임으로 관리하고, 실제 경영 의사 결정 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CEO 등 주요 경영진의 KPI 성과 평가에 ESG 요소를 확대하였음. 이와 더불어 2025년~2027년 총주주환원율(TSR) 35% 목표를 제시하며 ESG를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임.

도표 1 기아 ESG 추진 전략



자료 : 기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기아 탄소중립 추진 로드맵



자료 : 기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 Horizon Kinetics Energy Remediation ETF (NVIR)

Key Facts		Top Holdings (기준일: 2026.06.26)		NAV와 운용자산	
상장일	2023/02/21	CES Energy Solutions Corp	5.94%		
기초지수	-	Williams Cos Inc/The	5.93%		
BM지수	-	Texas Pacific Land Corp	5.64%		
구성종목수	40	WaterBridge Infrastructure LLC	4.76%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5.74	Enerflex Ltd	4.29%		
시장가격(USD)	38.16	Permian Basin Royalty Trust	4.06%		
NAV(USD)	38.25	EQT Corp	4.00%		
총보수(%)	0.85	Suncor Energy Inc	3.94%		
운용사	Horizon Kinetics	Cheniere Energy Inc	3.86%		
		Select Water Solutions Inc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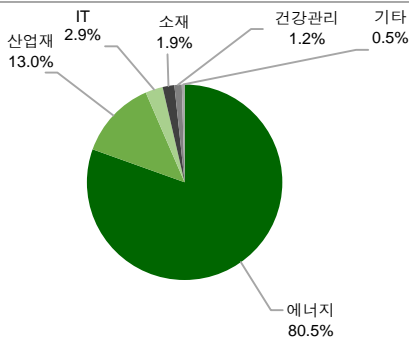
## ETF 개요

Horizon Kinetics Energy Remediation ETF (NVIR)는 2023년 2월 상장된 Active ETF로, 이 ETF는 기후 변화 및 환경적으로 민감한 탄소 기반 에너지 생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두 범주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함. (1) 장기적인 글로벌 수요 증가와 구조적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탄소 기반 에너지 생산 기업, (2) 탄화수소 생산 및 소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기존 및/또는 개발 중인 기술을 보유한 환경 복원 기업. NVIR은 가치 중심의 bottom-up 방식을 통해 기업을 분석하여 탄화수소 기반 에너지 생산 수요 증가로 인한 잠재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과 화석 연료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30~50개 선정하여 투자함. 이러한 기업에는 석유 및 가스 생산 기업, 파이프라인 기업, 수처리 시스템 기업,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기업,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탄소 소비 및 생산 기업이 포함됨.

##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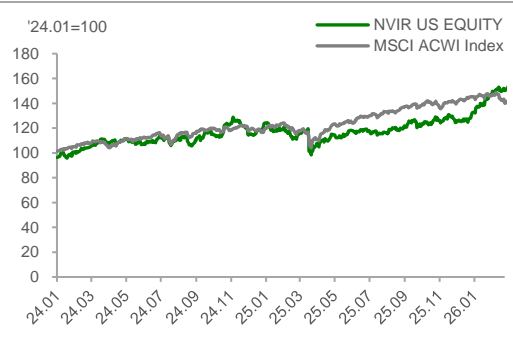
NVIR은 탄화수소 기반 에너지 생산 또는 관련 환경 복원 사업 등 두 가지 주요 범주에 집중된 엄선된 주식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는 ETF로 특성상 에너지(80%), 산업재(13%) 업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Active ETF임. 에너지 관련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투자자 중 ESG 특성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 투자 대안으로 검토해 볼 것을 추천.

NVIR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2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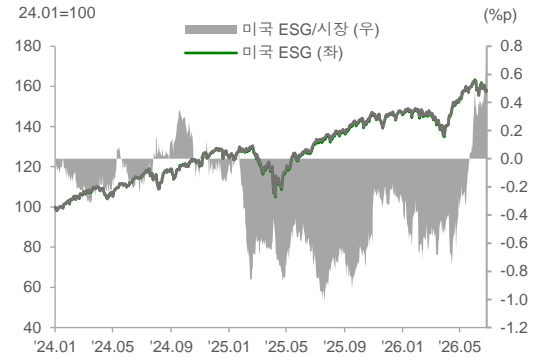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2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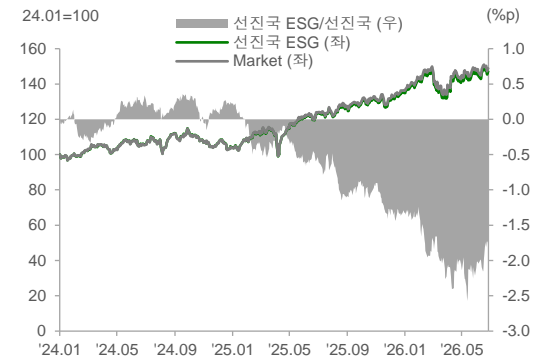
##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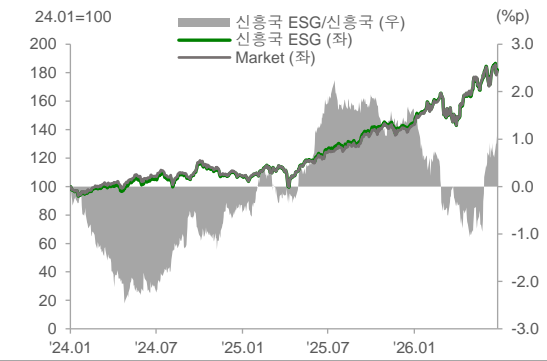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26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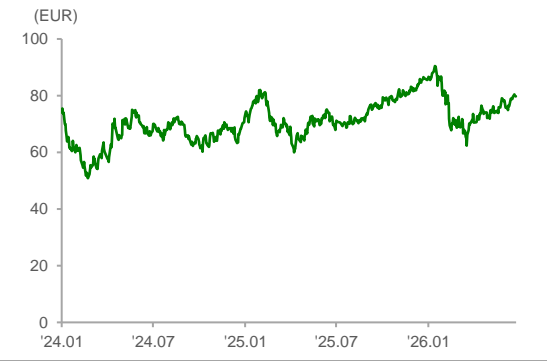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26 기준)

신중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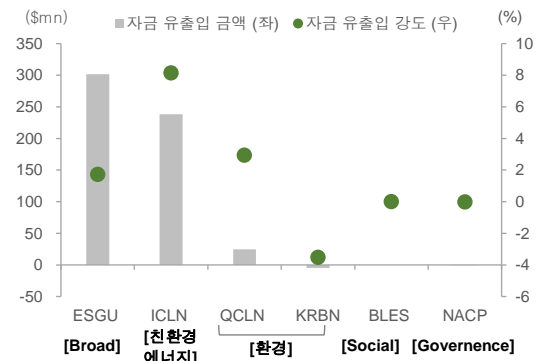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26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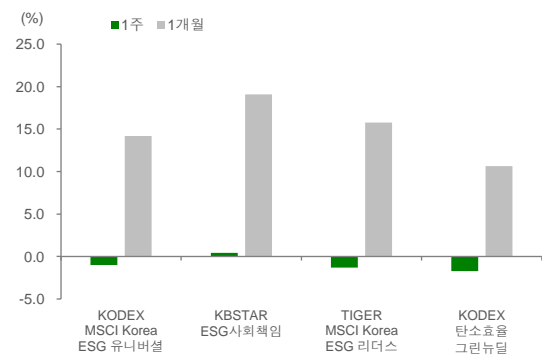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26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26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26 기준)

##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94,715	60	74.7%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18,839	13	14.9%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917	13	5.5%	13.4%
4	Social	5,859	5	4.6%	5.2%
5	Governance	452	3	0.4%	3.1%
6	기타	51	3	0.0%	3.1%
<b>ESG 전체</b>		<b>126,833</b>	<b>97</b>	<b>100%</b>	<b>100%</b>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26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리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Broad	ESGU	17,397	-1.75	-1.92	14.39	6.41	302	613	1.7	3.5
	ESGV	12,857	-2.27	-2.35	16.31	5.59	-27	149	-0.2	1.2
	SUSL	1,133	-1.77	-2.20	15.09	5.36	26	33	2.3	2.9
	NULV	2,101	0.41	-2.00	10.34	9.54	19	-26	0.9	-1.3
	NUSC	1,281	0.71	2.94	14.78	12.92	-76	-160	-5.9	-12.5
	ESGE	6,877	-3.64	-0.14	21.94	22.66	-170	-15	-2.5	-0.2
	ESGD	11,649	-1.23	-1.75	9.28	6.63	175	-9	1.5	-0.1
	EAGG	4,903	0.40	0.54	0.65	-0.80	137	538	2.8	11.0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2,928	-4.12	-11.55	12.35	21.80	238	635	8.1	21.7
	TAN	1,713	-3.97	-15.65	4.70	14.44	-71	533	-4.1	31.1
Environment	QCLN	829	-5.46	-8.54	32.35	30.97	24	105	2.9	12.7
	SPYX	2,691	-2.17	-2.31	13.99	5.47	7	26	0.3	0.9
	CRBN	1,121	-2.07	-1.97	13.36	7.07	26	48	2.3	4.3
	KRBN	138	-0.42	0.82	13.36	-6.03	-5	-32	-3.5	-22.9
Social	BLES	156	-0.13	-0.31	9.19	10.07	0	9	0.0	5.9
Governance	SHE	322	-0.93	-1.07	20.59	15.21	3	-7	1.0	-2.1
	NACP	75	-0.74	1.06	23.85	18.57	0	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26 기준)

###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 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260	-1.0	14.2	80.6	148.7	0.0	-29.8	0.0	-11.5
FOCUS ESG 리더스	82	-6.7	-5.7	23.2	50.0	0.0	-53.2	0.0	-64.6
KODEX 200ESG	2,434	-0.1	18.3	92.5	166.8	355.0	671.2	14.6	27.6
KBStar ESG 사회책임	5,837	0.4	19.1	99.8	180.8	-2,077	578.9	-35.6	9.9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300	-1.0	14.7	87.7	159.8	0.0	0.0	0.0	0.0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222	-1.3	15.8	81.3	135.2	-28.7	-50.7	-13.0	-22.9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571	-1.7	10.7	63.2	123.5	-117.1	-169.9	-20.5	-29.8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282	-1.8	10.4	63.0	122.8	0.0	-18.5	0.0	-6.6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282	-1.6	11.2	64.7	125.2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6.26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 ESG News Clipping

### 기업 ESG 뉴스

#### S (사회)

[\(26.06.12\) 배터리 여권 시행 앞두고...혼다는 어떻게 영업비밀 지키나-Impact-on](#)

규제기관·재활용업체·차주...보여줄 정보가 각각 다르다  
탄소발자국 계산법도 제각각...비교 불가능하면 여권은 무용지물  
시행은 다가오는데 세부 규칙은 아직 미완성

[\(26.06.19\) 美 기업을 인권경영 엇갈린 행보...로비 확대부터 조직 축소까지-Impact-on](#)

화학연료·IT업계, 인권 규제 완화 위해 전방위적 로비 수행  
일부기업, 인권 부서 감축 및 준법 중심의 '조용한 후퇴' 정책 채택  
미국의 반ESG기조에도 인권관리 수준 유지한 기업 상당수

[\(26.06.22\) 네슬레, 킷킷 공급망 바꾼다...재생농업 밀 51% 적용-Impact-on](#)

연간 15억 개 생산되는 킷킷에 적용  
탄소 감축 승부처는 농업 공급망  
다농·펍시코도 가세...재생농업 공급망 확산

[\(26.06.23\) 美태양광 업계, 한화큐셀 겨냥...관세전쟁 '부메랑' 됐다-Impact-on](#)

한국산 셀, 우회수출 의혹...한화큐셀, "근거 없는 제소" 반박  
동남아 규제 주도하던 한화큐셀...美 경쟁사 "한국산 셀도 조사하라" 맞불

[\(26.06.25\) 현대차·기아도 조준...월드컵서 '철강 공급망 인권 리스크' 시위 발발-Impact-on](#)

철강기업'테르니움', 현지 환경운동가 실종 연루 의혹  
테르니움, 브라질 산타크루즈 제련소 대기 오염으로 인해 누적 사망자 1200명 추산  
테르니움, 상위 10% ESG평가 받았지만 인권·환경리스크 부각...  
글로벌 공급망 실사체계 공백 드러나

#### G (지배구조)

[\(26.06.15\) 삼성전자, '재고 없다'더니 판매 중? ...250만 유튜버 소송 예고-Impact-on](#)

삼성전자, 보증기간 내 결함에도 제품 수리 요청 일방 종료...  
제품결함 "정상 판정" 뒤 재반송  
"재고 없다"던 삼성전자, 아마존 공식 스토어엔 해당 제품 판매  
보증 약관엔 '시장가 환불' 명시...로스만, 60일 내 소송 예고

[\(26.06.16\) MS, 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 'AI 자출, 애저 둔화 공개 안했다'-Impact-on](#)

애저 성장을 40%에서 39%로 둔화, 자본지출은 66% 증가  
AI 설비투자, 성장 스토리에서 소송 리스크로

[\(26.06.17\) 에퀴노르, 2030 재생에너지 목표 폐기...전력 투자 10%만 배정-Impact-on](#)

재생에너지 목표 대신 '발전량 전망'으로 대체  
전력사업 투자 비중 10%...탄소저장 목표도 삭제

[\(26.06.18\) 현대건설, 싱가포르서 조직적 비리...안전 위반 목인하고 금품 수수-Impact-on](#)

비리의 온상 된 '동남아 최초 대형 지하발전소' 현장  
싱가포르 현지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시험대 올라...40년 싱가포르 신뢰도 타격 우려

[\(26.06.24\) 국내 기업 절반, 실적 꺾여도 이사 보수 그대로...서스틴베스트 ESG평가 발표-Impact-on](#)

실적 좋을 땐 보수 올리고, 나쁠 땐 덜 내렸다  
공시는 늘었지만 장기성과 연동은 19.2%뿐  
ESG 우수기업 100곳 선정...HK이노엔·유한양행·네이버 상위권

정책 ESG 뉴스

**E (환경)**

[\(26.06.18\) 트럼프, 해상풍력에 또 칼 빼들었다...1조원 들여 임대권 회수, 개발사는 가스·지열로 유턴-Impact-on](#)

뉴욕·메인·캘리포니아 해상풍력 '올스톱'...임대권 4건 회수  
AI 전력전쟁 틈타 해상풍력 퇴출...가스·지열로 자금 이동

[\(26.06.19\) 전환금융, 녹색금융 공백 메울까...한·일 전문가 '산업 로드맵·검증체계가 핵심'-Impact-on](#)

전환금융, 녹색금융 공백 메울 대안... 국가 산업 구조상 도입 필수적  
국내 5대 산업의 탄소배출 비중 75%에 달해... 밸류체인 내  
간접 배출(Scope 3) 관리가 핵심  
일본 GX 국가 전환채권 사례 및 국내 첫 전환채권 발행 사례 공유

[\(26.06.23\) EU CCS 목표 '빨간불'...2030 탄소 저장 용량 35% 부족-Impact-on](#)

프로젝트 100% 실행해도 목표 달성 어려워...최종 투자 결정 5배 이상 확대돼야  
저장 의무는 있는데 포집 물량·운송량은 부족  
수익성 떨어지는 탄소 저장...보조금마저 엇박자

[\(26.06.24\) 캘리포니아, 트럼프 행정부에 '맞소송' 예고...해상풍력 '밀실 취소' 전면전-Impact-on](#)

캘리포니아 "납세자 돈으로 청정에너지 없애는 밀실 매입"  
해상풍력 임대료를 LNG·천연가스로...반복되는 '바이백' 전략  
서부 전력망 강화·2045 기후 목표 '빨간불'

[\(26.06.25\) 포장재부터 제품여권까지...EU 환경규제, 수출기업 '증명 전쟁'으로-Impact-on](#)

"8월 12일까지는 유해물질 증빙이 핵심"...PPWR 대응은 포장 데이터부터  
PFAS·재생원료·DPP 대응 고려사항...유예기간·검증 시점 살펴야

**S (사회)**

[\(26.06.12\) 'AI 때문에 해고했다'...중국·미국, 기업 감시 나선다-Impact-on](#)

중국 관영 노조·법원·정부, 동시에 움직였다  
AI 해고도 관리 대상...캘리포니아, WARN법 개정 검토  
'AI로 몇 명 줄었나'...공시 논의도 확산

[\(26.06.16\) 캐나다, '강제노동 수입금지' 법안 의회 제출...북미 전체가 공급망 인권 규제-Impact-on](#)

미국 통상 압박에 대응한 캐나다의 '집행 전환'  
자료 못 내면 수입금지...공급망 ESG가 '통관 리스크'로 바뀐다

[\(26.06.17\) ILO, 플랫폼 노동자 보호 국제협약 채택...기업 인권경영 도마에-Impact-on](#)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 보장 및  
알고리즘 사용 규제  
노동인권 관리에 대한 압박 가중...국내 플랫폼 기업도 대응 서둘러야

[\(26.06.22\) '우린 AI 개발사 아닌데'...EU 고위험 AI 기준 보니 채용·신용평가도 포함-Impact-on](#)

고위험 AI 구체화...채용·신용평가·교육 포함  
단순 문서정리는 제외 가능...프로파일링은 엄격 적용  
고위험 AI로 분류되면 추가 의무 발생

**G (지배구조)**

[\(26.06.15\) "중복상장은 3%를 사안 아냐...일반주주 다수결 방식이 대인"-ESG경제](#)

거버넌스포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발표 앞두고 논평  
'3%룰'은 경영 감시 목적...가장매매 등 우회방법도 많아  
"자회사 상장 따른 주가 하락, 일반주주만 직접 피해"  
"일반주주와 이해상충...지배주주 의사결정서 제외 타당"

일반 ESG 뉴스

**E (환경)**

[\(26.06.12\) 탄소규제 풀려던 EU...12조유로 투자자들 '시장 흔들지 마라'-Impact-on](#)

ETS, 산업정책으로 바뀌나  
무상할당 연장, 국제선 항공·폐기물 소각까지 검토  
산업계는 숨통, 투자자는 반발

[\(26.06.15\) 서울 소규모 태양광 탄소 감축실적, 배출권 시장으로 연결-ESG경제](#)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모아'로 시민 탄소 감축 성과 수익화  
후시파트너스, AI 플랫폼으로 감축량 산정·인증 절차 지원

[\(26.06.18\) ISO 첫 넷제로 표준 공개...기업, 목표 수립 후 2년 내 감축계획 내놔야-Impact-on](#)

2년간의 전문가 논의 끝 결실... 역대 최대 규모 워킹그룹 참여  
탄소중립목표 설정 이후, 2년 내 상세 감축계획 제시 필요...  
중소기업 가이드라인 별도 마련 예정

[\(26.06.19\) 전환금융, 녹색금융 공백 메울까...한·일 전문가 '산업 로드맵·검증체계가 핵심'-Impact-on](#)

전환금융, 녹색금융 공백 메울 대안... 국가 산업 구조상 도입 필수적  
국내 5대 산업의 탄소배출 비중 75%에 달해... 밸류체인 내  
간접 배출(Scope 3) 관리가 핵심  
일본 GX 국가 전환채권 사례 및 국내 첫 전환채권 발행 사례 공유

[\(26.06.22\) EU CCS 목표 '빨간불'...2030 탄소 저장 용량 35% 부족-Impact-on](#)

프로젝트 100% 실행해도 목표 달성 어려워...최종 투자 결정 5배 이상 확대돼야  
저장 의무는 있는데 포집 물량·운송량은 부족  
수익성 떨어지는 탄소 저장...보조금마저 엇박자

[\(26.06.23\) '글로벌 도시 데이터센터 협약' 출범...전력·물 부담 완화 추진-ESG경제](#)

주요 도시 기후행동 네트워크 C40 시티스가 주도

[\(26.06.24\) 한국 기업 ESG 전략 통합 '글로벌 하위권'...10곳 중 8곳 재무영향 측정 못 해-Impact-on](#)

지속가능성 전략과 지표에 대한 이해도 높지만...재무지표 연계는 '낙제점'  
한국, 지속가능성과 경영전략 통합 여부 '하위권'...미국은 최하위  
"수치로 증명해야 자본 움직인다"...채질 개선 요구

[\(26.06.25\) MSCI, 기후 리스크 데이터업체 퍼스트 스트리트 인수... "기후 위험, 자본 가격에 반영"-Impact-on](#)

기후 위험, 공시 정보에서 가격 변수로 이동  
물리적 기후위험 데이터 시장 커진다

**S (사회)**

[\(26.06.17\) 영국 알루미늄 고철은 왜 43%나 유출됐나-Impact-on](#)

미 관세 장벽이 촉발한 영 알루미늄 고철의 기형적 유출  
2035년까지 600만톤 필요한데... 빗장 거는 EU, 영국은 '사면초가'  
미국발 '광물 가격 하한제' 추진에 G7 동맹국마저 이견

**G (지배구조)**

[\(26.06.16\)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공시 뜯어보니...집중투표제 도입 고작 4.4%-ESG경제](#)

코스피 상장사로 지배구조 공시 확대 첫해...평균 준수율 47.8%  
9월 의무화 앞둔 집중투표제·사외이사 의장 등 핵심영역 개선 더더  
리더스인덱스 조사...기존 기업 58.9%·신규 기업 29.2%로 격차 커  
포스코홀딩스 6년 평균준수율 97.8% 1위...KT&G, SKT, KT 상위권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 종목**
-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산업**
-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조건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조건 비율			
기준일(20260331)	매수 : 88.13%	중립 : 10.63%	매도 : 1.25%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기아	-	-	-	-	-	-	-	-

